

■ ISSUE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성과와 과제 \_ 심승구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1. 이사회
2. 2022년 2차 이코모스포럼
3. 학술소위원회 활동
4. 이코모스 멕시코 사울 알칸타라 위원장 방한
5. 용역 현황
6. 신규 회원

■ 문화유산 유관기관

1. 문화재청
2. 유네스코 1970년 협약과 ICPRCP
3.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국제 동향 및 활동

1. 이코모스 본부
2. 이코모스 발간물
3. 향후 주요 행사

### 3.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유산관리팀 박새은 · 교육홍보팀 신종일

1) 세계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2년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 참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하 “서원관리단”)은 지난 3월 문화유산 산업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인턴사원을 배정받았다. 「문화유산 산업인턴 지원사업」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 분야 취업준비생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기획 분야에서 업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인턴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매칭해주고,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인턴수당을 지원해준다.

서원관리단을 1순위로 지명한 이승민 인턴은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복수전공으로 문화유산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원에서 세계유산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인턴사원의 주요 업무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모니터링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재해관제실의 CCTV를 체크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서원관리단은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9개 서원의 경외 구간을 비추는 CCTV는 서원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점검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각 서원의 유림 담당자가 매월 10일까지 점검 후 전송해주는 체크리스트와 건축물, 주변 환경의 사진 자료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6월에는 실제로 서원을 방문해서 방재시설물, 건축물, 서비스시설, 활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서원관리단은 세계유산 분야 전공자들이 실무를 익히고 세계유산 관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2022년도 ‘한국의 서원’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  
서원관리단은 2025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대한 종합 자료집 발간을 목표로 하여, 2021년에는 ‘한국의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올해는 9개 서원의 건축물 및 수목 현황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 현황조사는 서원 건축물 실측 도면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것이며, 수목 현황조사는 실측 조사와 더불어 식재된 수목들이 전통 서원조경에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서원의 완전성을 위한 식재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조사의 총괄책임자는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이며, 건축물 조사는 강희재 건축사사무소(대표: 강성원 건축사·문화재 수리기술자), 수목 조사는 오충현 교수 연구팀(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이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연구팀은 본 사업이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위함이 아니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OUV를 구명하고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이란 본 사업 목적을 위하여 박경립 교수(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감사) 등 자문위원들의 연구 참여를 기획하고 있다.



전용 앱을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재해관제실 화면 모니터링